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8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박상혁 · 김문수
박지혜 · 이훈기 · 이재강
이정문 · 남인순 · 윤준병
박지원 · 김용민 · 김태년
윤후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,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.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

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,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,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.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.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렵습니다.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,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

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,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163조의2).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3조의2제2항 중 “판결서는”을 “판결서는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62조제4항·제5항 및 제163조”를 “제162조제4항 및 제163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판결서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1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수수료에 관한 적용례) 제1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3조의2(판결서의 열람·복사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<u>판결서</u> 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 ③·④ (생략)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<u>제162조제4항·제5항 및 제163조</u> 를 준용한다. <u><신설></u> ⑥ (생략)	제163조의2(판결서의 열람·복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판결서는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<u>제162조제4항 및 제163조</u> ----- -----. ⑥ <u>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.</u>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